

새천년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방안 모색 · 외

새천년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방안 모색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창광)는 구랍 10일 '출협' 강당에서 <2000년대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주제로 제18회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해방 이후 줄곧 '외국 저작권 무료사용 시대'를 누려왔던 출판계는 1995년 세계저작권조약(UCC) 가입과 1996년 8월 21일 베른협약 가입으로 1999년 12월 31일부터 "저작권이 살아 있는 모든 국내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시대로 돌입했다.

이번 포럼에서 출판인들의 이목을 끈 것은 구랍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다.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의 문제가 성토의 대상이 됐다.

개정 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 디지털 복제 허

90년대의 책 100선 선정 · 외

교보문고(대표 윤경하)는 전문가 100인의 추천을 받아 <90년대의 책 100선>을 선정, 발표했다. 최다 추천을 받은 책은 21회를 기록한 최명희의 《혼불》이며, 최다 추천작품을 배출한 출판사는 12종의 민음사였다.

한편, 교보문고는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과 함께 펼친 <제6회 전국 초등학교 독후감 경연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경기 김포서 초등학교 1학년 김재호 군이 차지했다. 또한 교보문고는 '고객 모니터' 요원을 지난달 15일까지 모집했다.

정기총회 및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펼쳐

한국사립문고협의회(이사장 한기창)는 11월 29



제18회 출판포럼 장면

용' 항목을 신설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신각철 연구위원은 "전자출판물은 디지털 정보로서 컴퓨터 통신망에 의한 복제·전송이 용이하다. 우선 도서관 등에서 아무런 경제적 부담과 노력 없이 출판사에서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그대로 복제·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국립중앙도서관이 신간학술서를 디지털화해 전국도서관에 전송하게 되면, 도서관에서는 해당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열람자들이 도서내용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게 돼 저작권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김태훈 사무관은 <출판문화> 11월호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허용은 국가적 전자도서관 사업을

돕기 위해 저작자의 복제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작자 권리 보호와 합리적 저작물 이용 관계 정착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판인은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출협' 저작권위원회 김종수 부위원장(한울 대표)은 "해당 조항이 애매하다. 도서관에서 전용 단말기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9회 출판포럼은 구랍 20일 <새천년 — 출판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출협' 강당에서 열렸다.

<오완진>

일부터 이틀 동안 전주유스호스텔에서 <99 한국 사립문고협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을 총재로 추대했다. 한편, '협의회'는 <99년 산촌·어촌·농촌·탄광촌 마을에 사랑의 도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 각 출판사를 대상으로 제고도서 판매협조를 요청했다.

출판학회상 시상식 및 학술대회 개최

한국출판학회(회장 윤형두)는 지난달 17일 한국 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제20회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을 가졌다. 저술·연구 부문은 한세대 신방과 이임자 강사와 나눔출판 조상호 대표, 기획·편집부문은 웅진출판사 윤석규 회장, 특별공로부문은 한진출판사 한갑진 대표가 수상했

다. 한편, 학회는 같은 장소에서 <제9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창립 사진전 개최

한국출판사진가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닥 포토살롱에서 <한국출판사진가협회 창립 사진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 16명이 출품한 작품 45점이 전시됐다. '협회'는 매년 1회 출판사진전을 개최하고, 출판사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책 투표 실시

인터넷 북리뷰 부꾸(대표 조성일, www.bookoo.co.kr)는 창간 1주년을 맞아 <네티즌이 뽑은 올해

의 책》 행사를 펼친다. 지난해 11월까지 나온 책을 대상으로 인문일반·역사 등 11개 분야로 나눠 선정하고, 2차 투표를 실시해 1위에 오른 책을 <올해의 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 독서 전문 웹진 <부꾸 어린이 마을>을 별도로 창간했다.

좋은 어린이 책 목록 선정

책읽는교육사회실천협의회(대표 김홍규)는 <2000년 좋은 어린이 책 목록>을 발간했다. 이 목록은 유치부에서 초등학교까지 망라하는 도서를 '다른 나라 그림 책' '우리 나라 그림책' '창작동화' '옛이야기' 등의 방식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혼불의 밤' 행사 열어

한길사(대표 김언호)는 지난달 9일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작가 최명희의 작고 1주년을 맞아 <혼불의 밤>을 개최했다. 작가 최명희와 작품 <혼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 그의 문학정신을 기렸다.

시와시학상 시상식 및 시낭송회 개최

시와시학회(회장 조영숙)는 지난달 9일 소극장 알과핵에서 <제4회 시와시학상> 시상식 및 <송년 시낭송회>를 열었다. 이날 시인 김영석·이문재·평론가 정효구씨 등이 상을 받았다.

'12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회장 윤양중)는 <12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발표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현각, 열림원), <작은 인디언의 숲>(E. T. 시튼, 햇살과 나무꾼, 두레),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한영우, 지식산업사), <정치 없는 정치시대>(송호근, 나남출판),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성낙주, 개마고원), <파리, 생쥐, 그리고 인간>(프랑수아 자콕, 이정희, 궁리), <양화소록>(강희안, 서유희·이경록, 놀와), <폴 크루그먼의 불황경제학>(폴 크루그먼, 주명진, 세종서적), <황무지가 장미꽃같이(1~3)>(김진홍, 한길사),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한비아, 푸른숲).

한국형 서점 지향하는 골드북 개점



골드북 임명철 대표

서점 골드북(대표 임명철·손탁희) 보라매점(보라매 아카데미타워 지하 1층)이 지난달 11일 문을 열었다. 관악구 신림동 전철역을 중심으로 서울 남서부지역의 상권에 자리잡은 골드북은 연건평 1300평(실평수 650평) 규모의 초대형 서점으로 서적 2백만권과 전자출판물·음반·문구 등을 함께 취급하는 윈스톱서비스형 복합매장으로 구성됐다.

골드북이 지향하는 사업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한국형 인터넷 서점(2월 중 개점 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임대표는 "기존 인터넷 서점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출판실정과 독서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서점 대 고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터넷 서점

의 기능을 '서점 대 서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즉, 인터넷을 매개로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골드북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서점을 모집하고 있다. 임대표는 "지역 서점과 연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인터넷 회원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맹 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계는 첨단 노하우를 갖춘 골드북의 탄생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모기업의 대외 인지도가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지금 막 탄생한 골드북이 과연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는 의문 때문이다.

임대표는 "우리 서점업계의 현실적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문제를 극복할 영업전략을 통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천년, 골드북의 활약이 기대된다.

<오완진>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1999.12.8~12.14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노자와 21세기(상)	김용옥	통나무	인문과학
2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각	열림원	비소설
3	풍경	원성	이레	비소설
4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정찬용	사회평론	외국어
5	철도원	아사다 지로	문학동네	소설
6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소설
7	맥킨지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에단 라지엘	김영사	사회과학
8	금강강강하	김용옥	통나무	인문과학
9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	데이비드 리버만	창작시대	비소설
10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류시화	열림원	시
11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터드 칼슨	창작시대사	비소설
12	데프콘	김경진	씨앗을뿌리는사람	소설
13	퇴마록(말세편)	이우혁	들녘	소설
14	흐르는 강물처럼	여병렬	평민사	소설
15	그대 눈을 떠봐 온통 사랑이야	정비룡	해동	시
16	꼭 외워야 할 영어 영문 BEST 20	김영숙	미국영어사	외국어
17	그것은 꿈이었을까	은희경	현대문학	소설
18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전경린	문학동네	소설
19	러브레터	이와이 슈문지	집사채	소설
20	공부도독놈 희망의 선생님	신호범	웅진출판	비소설